

일본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구조적 원인은 한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다. 피할 수 없다.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은 존재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다. 힘겨운 악순환을 끊어낼 때다. 일본은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고 '페어플레이' 할 수 있을까?

근대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있다. 일본이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894년 이후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진정한 사죄 없이 어떻게 '세계평화'를 맞이할 것인가.

올림픽정신과 대회 슬로건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며,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재임하던 1959년에 유치한 대회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2013년 9월 아베 총리가 올림픽 유지를 확정된 후, "일본의 장기 침체 탈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흥 올림픽'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모든 단어 선택은 방향성과 함께 욕망을 품고 있다. 일본은 부흥 올림픽을 표방하지만 자칭 '후쿠시마 홍보경기장'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다. 일본 정부는 선수들 식탁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리고, 선수촌 건설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



전 매 광 장

김석한
광주스포츠과학센터장

2020 도쿄올림픽과 페어플레이

용한다고 발표했다. 분명한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최고 단계인 7등급 사고였고, 전 세계 선수들이 피폭 위험을 감수하고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유엔(UN)은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 나눔, 신뢰, 타인과의 유대, 관용 등을 체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의 순기능을 통하여 국가 부흥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페어플레이'에도 어긋난다.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 평가를 받기 힘들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마스코트의 의미처럼 '영원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미라이토와'는 일본어로 '미라이(未來, 미래)'와 '토와(永遠, 영원)'의 합성어다. 미라이토와는 순간 이동을 비롯한 초능력을 가진 미래 로봇으로 올림픽 엠블럼의 격자무늬를 형상화했다. 최근 '후쿠시마올림픽'에 대한 불안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7년 9월~10월 사이 두 차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이타테와 나미에 지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할 결과, 사람이 살기에 방사선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 8주를 앞둔 지난 3월 8일 드론 등을 이용하여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서 주변 지역의 방사선 피폭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

을 모두 제거했고 피폭 위험도 사라졌으며 '문제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민간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의 각종 질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 원장은 2017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핵발전소 사고 뒤 백내장과 뇌출혈, 각종 암 등의 질병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라이토와'의 진정성

우리나라에서도 시민 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7월 30일 성명을 내고 올림픽에 후쿠시마원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계획을 금지하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림픽이 원전사고의 위험을 감추기 위한 홍보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역사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때가 되면 나온다"고 말했다. 인류 범죄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기본에서 시작해야 해결책이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가해국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와 더불어 주변 국가와의 상생과 공존의 미라를 열어 나가야 한다. 올림픽 정신을 뒤로보고, 페어플레이를 준수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사 설

옛 전남도청 복원 차질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을 오는 2022년까지 복원한다고 한다.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형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된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관련 직제 일부 개정안을 보면 추진단은 1차관 직속으로 복원 협력과, 복원시설과, 전시콘텐츠팀 등 2과 1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문체부 11명, 국무조정실 1명, 행정안전부 1명, 국방부 1명, 광주시 7명, 민간전문가 3명 등 총 24명이 배치된다. 추진단은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건물 6개 등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복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도민의 지난한 노력과 투쟁이 있었다. 5·18의 역사적 현장을 복원하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었고, 5·18제도의 투쟁과 지역 언론의 독려가 있었다. 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항쟁의 실제적 진실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다.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을 벌이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다수가 희생된 곳이다. 시민군 지휘부가 있었던 본관 내부와 5월 27일 계엄군이 무력으로 도청을 진압할 때 시민들을 향해 부 11명, 국무조정실 1명, 행정안전부 1명, 국방부 1명, 광주시 7명, 민간전문가 3명 등 총 24명이 배치된다. 추진단은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건물 6개 등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신안군의 바다 위 '꽃 정원' 응원한다

신안군 안좌면 반월·박지도가 온통 보랏빛 물결이라고 한다. 먹을거리는 물론 주민들이 사는 주택 지붕과 외관은 물론 앞으로 생활자기와 앞치마, 속옷까지 모두 보랏빛으로 바뀐다고 한다. 섬 전체가 보랏빛(퍼플·purple)으로 단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섬의 변신은 "신안 14개 면을 꽃으로 특화해 일년 열두달 꽃축제를 개최, '꽃아오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박우량 군수의 원대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신안 섬 전체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 바다 위 '꽃 정원'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라고 한다. 그 일환으로 지금 안좌면 반월·박지도는 라벤더 향 가득한 보랏빛 옷으로 갈아입는 중이다.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이 섬은 행정안전부가 울려부른 찾아가면 좋은 33개 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반월·박지도는 목표에서 천사대교를 거쳐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안좌도와 1,462m의 나무다리로 연결돼 있으며, 데크길을 걸어 건너갈 수 있다. 이 다리 아래로 갈대·파래도 보이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많은 종류의 계와 쟁둥어도 볼 수 있다. 신안군이 이 섬을 사계절 보랏빛이 피는 '퍼플 섬'으로 바꾸기 위해 라벤더 4만본을 심었다고 한다. 21억을 들여 다리 보강공사와 함께 야간조명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부임한 김동우 안좌면장은 "100여명의 주민이 한마을로 적극 동참하고 있어 작은 섬 반월·박지도가 머지않아 '퍼플 섬'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천사의 섬'으로 애칭 되는 신안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관광지원의 보고다. '관광전망'의 최대 블루오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우량 군수의 계획이 결실을 맺어 신안이 세 계적 섬 관광지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에 세 이



장병호
수필가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퓨리(Fury)' (2014)라는 영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우는 전차 부대의 활약을 그린 작품인데, 그 한 대목이 가끔씩 생각난다. 주인공이 이끄는 소대가 어느 도시를 점령했는데, 한 건물에서 중년 여인과 그의 젊은 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소대장과 젊은 병사가 집안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피는데, 거실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평소 그 집 딸이 쓰는 것이었다. 마침 젊은 병사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지라 잠깐 곡 하나를 연주하게 된다. 그러자

겁에 질려 있던 그 집 딸의 눈에 생기가 돌며 병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병사 또한 처녀에게 끌린다. 피아노를 매개로 청춘남녀가 금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다음 장면이다. 이들의 마음을 알아챈 소대장이 남녀에게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그리고 자기는 거실에서 처녀의 어머니와 함께 그들의 만남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전장에서 피어난 사랑! 따지고 보면 서로 적대적인 처지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만난 지 채 반시간도 안 된 사이지만 그들은 첫눈에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그렇게 순식간에 타오를 수가 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소대장의 부하에 대한 마음 씀씀이다. 전장에 나와 생사의 갈림길을 헤쳐온 그들에게 이성은 얼마나 목마름의 대상이었겠는가. 소대장은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기에 부하에게 감정을 풀 기회를 준 것이다. 그것이 전리품을 취하듯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었다면 비난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에게 젊음을 불태울 기회

배려의 향기

를 허락한 것이므로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부하를 배려할 줄 아는 주인공이 참 멋져 보였다. 요즘 '배려'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돌고 있다. 경쟁으로 치닫는 삭막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일까? 이기심과 경쟁심이 커질수록 인간소외는 증폭되고, 사회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나눔과 배려의 실천인 것이다. 그런데 배려는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 때 더욱 빛난다. 똑같은 행위라도 아랫사람이 뒷사람에게 하는 경우에는 다른 뜻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나오다가 거꾸로 놓인 부하직원의 신발을 바로 놓아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나 부하 직원이 사장의 신발을 바로 놓아준다면 어떨까? 아마 순수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이렇듯 배려는 뒷사람에게서 아랫사람으로 향할 때 감동을 준다. 따라서 뒷사람

은 물론, 강자는 약자에게, 부자는 빈자에게, 다수는 소수에게 먼저 두 팔을 벌리고 관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갑질'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가? 대한항공 항공회화 사건에서 보듯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공분이 아니던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경주에서 이름난 최부자집의 가훈이다.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보살피야 한다는 상생과 공존의 교훈을 담고 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富不三代)'는 말이 있지만, 경주 최부자집은 12대에 걸쳐 300여 년 동안 만석군의 명성을 이어왔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훈에 담긴 배려의 정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영화 '퓨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의 소대가 전차 한 대로 수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말단 병사에게까지 마음을 써준 소대장의 세심한 배려가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독 지 광 장

장마가 지나간 후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 등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이며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상태악화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은 눈·발, 야외작업장, 차량 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령

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층에서 논과 밭,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작업 중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발견되어, 119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사일은 이른 아침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하도록 하며, 낮 12시~5시까지는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장문이 닫힌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 둔 경우 탈모된 차량 안은 공기 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여름철 한낮에 서너 시간 정도만 지나도 금세 4~50도 이상으로 올라가 열사병으로 중

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어린이를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낮 12시~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을 자제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셔 수분을 유지한다. ▲너무 달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 주류는 자제한다.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

단하고,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하루 동안 여러번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준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여름철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수칙 준수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복수

사면초가 빠진 저비용항공사(LCC)

기지수첩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동남아나 가까운 해외여행이 더 저렴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저비용항공사(LCC) 등장 이후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생겨난 말이다. 최근 10년 사이 저비용 항공사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2곳, 저비용항공사(LCC) 6곳, 화물운송항공사 1곳 등 운영 중인 항공운송사업자는 총 9곳이다. 올해 초 조건부 운송면허를 받은 저비용항공사 3곳을 더하면 항공사는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여행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했다. 급격한 항공 좌석 공급을 수요가 상쇄해 이례적인 활황을 맞았던 저비용항공사(LCC)가 최근 휘청이고 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일본 여행 보이콧'이 거세지면서부터다. 국내 LCC항공사의 일본노선은 평균적으로 국제선 수요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어서울의 경우 일본 노선 비중은 무려 65%에 달한다. 최근 급등한 환율 또한 실적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사업은 항공기 리스, 유류 구입 비용을 비롯해 정비비, 보험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다. LCC 간 '제살까먹기' 경쟁도 큰 문제다. LCC들은 항공운임 '원인 특가', '얼리버드 이벤트' 등 초저가 항



길용현
경제부 기자

공권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내 대표 LCC인 제주항공은 2분기 손실 274억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적자를 낸 것은 2014년 2분기 이후 20분기 만이다.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도 각각 265억원, 219억원의 손실을 냈다. 국토부 제재가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진에어의 영업적자도 266억원에 이른다. 여객 시장 성수기인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점을 미뤄볼 때 향후 전망도 어둡다. LCC들도 발 빠른 노선 증·감편 등 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순한 노선 조정이 여객 수요 감소와 실적 악화를 뒤집을 수 있는 극적인 '카드'가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비전을 수립하고 내실을 탄탄히 쌓아야 한다. 항공업계가 산적한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제도약할 수 있기를 주목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희철	대표이사·발행인 김용만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0	기시제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기 획 실 (062) 720-1005	•TEL (062) 720-1050-54			
사 회 부 (062) 720-1050-54	논 설 실 (062) 720-1032	•FAX (062) 720-1080-82			
사 회 2 부 (062) 720-1043-45	월 간 국 (062) 720-1006-07	•E-mail jndn@chol.com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광고문의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 매 국 (062) 720-1098	•TEL (062) 720-10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FAX (062) 720-1020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E-mail jnm1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 주:한성공필보사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